

《축 사》
《祝 辞》

김 근태
金 權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大韓民國 保健福祉部 長官

祝 辞



金 権泰
大韓民国保健福祉部
長官

尊敬する日韓社会福祉専門家の皆様、アンニョンハセヨ。（こんにちは）

保健福祉部の金権泰です。

「高齢者福祉施設における専門性の促進と社会資源の開発－認知症高齢者福祉を中心に」のテーマで「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開催されますこと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厳しい環境においても黙々と献身的に奉仕される皆様に感謝いたします。

古今東西を問わず、お年寄りを敬う敬老孝親の思想は我々にとって最も根本となる心です。そして、孝の思想はその実践が伴ってはじめて重要な意味をもつこととなります。

よって社会福祉士はこうした敬老孝親の思想を自ら実践し、行動する良心であり、愛の実践家であります。

皆様もよくご存知のとおり、日本は既に世界最高齢国家になって久しいです。わが国も2000年に既に高齢化社会に突入し、2018年には高齢社会、2026年には超高齢社会に入ることと予測されています。

高齢化は先進国が既に経験している問題ですが、わが国の場合には高齢化がその類例を見ないほど急速に進行しています。

高齢者福祉は今後高齢者だけ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高齢者問題はわれわれにとって近い未来の問題であり、こうした側面から高齢化に対する備えは国家の生存戦略とい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

こうした時期にあわせ、社会文化的伝統が似ている日韓社会福祉専門家らが一堂に集まり、互いの意見を交換し、高齢者福祉の増進の方法を模索することは非常に意義深いことだといえます。

政府では高齢社会に備える国家の基盤を整えていくことを国政の最優先課題の一つとして認識し、低出産、高齢社会基本法を制定し、法的な基盤を構築し、老人長期療養保障法（仮称）、高齢親和産業振興法（仮称）の制定を推進するなど、低出産および高齢社会への対応政策を進めています。

尊敬する日韓社会福祉専門家の皆様！

国家と社会の発展のために生涯を捧げてきたお年寄りのための高齢者福祉は、費用よりも人間の尊厳に重心を置かねばなりません。老年層と青壮年層が互いに調和しながら生きていくことこそ、真の意味での福祉社会の姿であるといえましょう。

ぜひ本日の意義深いシンポジウムを通して、日韓両国の友好協力と高齢者福祉増進のためのよい案が多く見出されることを願います。

第3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の開催にあたり、改めて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皆様に大きな祝福と幸運がありますことを願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カムサハムニダ）

축 사



김 근태
대한민국보건복지부
장관

존경하는 한일 사회복지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의 김근태입니다.

‘고령자복지에 있어서 전문성 제고와 사회자원의 개발 - 치매(인지증) 고령자 복지를 중심으로’ 을 주제로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효의 사상은 그 실천이 뒤따를 때에야 비로소 소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경로효친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행동하는 양심이자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령국가가 된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도 2000 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 년이면 고령사회, 2026 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선진국들이 이미 겪고 있는 문제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이제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문제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의 문제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는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회문화적 전통이 유사한 한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노인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국가의 기틀을 잡아가는 것을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가칭 노인장기요양보장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일 사회복지 전문가 여러분!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의 비용보다 인간존엄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노년층과 청장년층이 서로 잘 조화되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뜻 깊은 심포지엄을 통해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훌륭한 방안들이 많이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제3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